

설악산 신흥사 조실 무산 대종사가 5월 26일 법랍 62년, 세수 87세로 원적에 들었다. 무산 대종사는 최근까지 신흥사 조실이자 조계종 종립 기본선원 조실을 맡으며 후학 양성은 물론 쉼 없는 수행을 이어왔다. 또한 1968년부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시조시인으로 만해사상실천선양회를 설립해 '만해대상' '만해축전' 등을 만들어 새로운 포교의 장을 열었다. 그 공로로 무산 대종사는 제23회 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본지가 촬영한 위 사진은 2011년 10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한 무산 대종사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그 어느 날도 산 것 같지 않다며 늘 빈틈없는 하루를 꿈꾸던 노장. 이제 그는 뜨는 해도 없고 지는 해도 없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 더 이상 그 좋은 문자도 그 깊은 음성도 일체 전하지 않는다. 그 문자와 음성의 주인이 자리를 옮기고 나니 그 문자와 음성이 많은 질문으로 남는다. 노장에게 여쭈어볼 시절이 분명 있었건만 그 좋은 시절을 놓치고, 뒤늦게 뜨거운 불 앞에 앉아 그 뜻을 여쭈어본다. 5월 26일 원적에 든 무산 대종사의 만다라다. **〈편집자주〉**

圓 寂

雪嶽堂 霧山 大宗師
(1932~2018)

아득한 성자

조오현

하루라는 오늘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뜨는 해도 다 보고
지는 해도 다 보았다고

더 이상 더 볼 것 없다고
알까고 죽는 하루살이 떼

죽을 때가 지났는데도
나는 살아 있지만
그 어느 날 그 하루도 산 것 같지 않고 보면

천년을 산다고 해도
성자는
아득한 하루살이 떼

■ 무산 대종사 주요 연보

1932년 경남 밀양 출생
1957년 밀양 성천사 인월 화상에게 사미계 수지
1960년 밀양 금오산 토굴서 6년 고행
1966년 〈시조문학〉 통해 시조시단 등단
1968년 범어사 석암 율사 계사로 비구계 · 보살계 수지
1977년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 취임
1989년 낙산사서 오도, 오도송 '파도'를 짓다
1992년 신흥사 회주가 돼 설악산문 재건을 시작
1997년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설립 · 만해대상 시상
1998년 백담사 경내 무문관 '무금선원' 개원
2000년 신흥사에 '향성선원' 개원
남설악 진전사 복원
2002년 백담사에 조계종 '기본선원' 개원
2003년 인제군 북면 용대리 '만해마을' 설립
2011년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조실 추대
2014년 조계종 기본선원 조실 추대
2015년 조계종 원로의원 피선, 대종사 법계 품수
2018년 세연을 거두고 5월 26일 오후 5시 원적

■ 무산 대종사 추모 일정

초재 6월 1일 오전 10시 신흥사
2재 6월 8일 오전 10시 백담사
3재 6월 15일 오전 10시 낙산사
4재 6월 22일 오전 10시 만해마을
5재 6월 29일 오전 10시 진전사
6재 7월 6일 오전 10시 건봉사
7재 7월 13일 오전 10시 신흥사